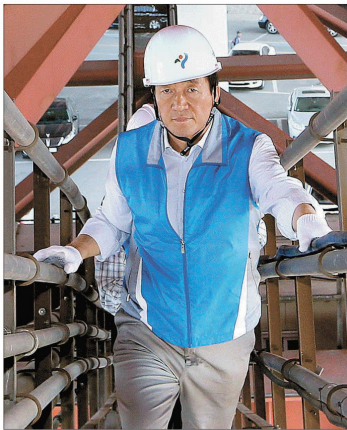




‘헬멧 쓴 정몽준·배낭 멘 박원순’ …조중동의 ‘악마의 편집’



헬멧 쓴 정몽준·배낭 멘 박원순 22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강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강남에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가 성산대교 철골구조 하부를 돌아보며 다리 안전을 살피고 있고(왼쪽), 배낭을 멘 박 후보는 삼성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5월 23일 중앙일보 5면 사진 기사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악마의 편집’을 애용한다?

‘악마의 편집’이란 재미나 화젯거리를 위해 사실을 왜곡해 알리는 것을 뜻한다. 설사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악마의 편집’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간지에서도 ‘악마의 편집’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23일자 종합면에 실린 사진 기사는 정몽준, 박원순 후보를 나란히 배치했다. 정 후보는 안전모를 쓰고 있고 박 후보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진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제목은 <헬멧 쓴 정몽준…배낭 멘 박원순>이었다.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제목만으로도 정 후보는 안전을 챙기는데 반해 박 후보는 매우 한가해 보인다. 사진 설명도 가관이다. “22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강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강남에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가 성산대교 철골구조 하부를 돌아보며 다리 안전을 살피고 있고, 배낭을 멘 박 후보는 삼성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가 사진 설명 내용이다. 정 후보에게는 강북의 안전을 챙기는 후보 이미지, 박 후보에게는 강남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후보 이미지가 풍겨져 나온다.



지하철역 청소하고
강북票心 집중공략

지하철안전 챙기고
강남개발 맞불公約

△ 5월 23일 동아일보 8면 기사

동아일보도 23일자 8면에 <서울시장 여야후보 동행 24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은 어떠한가. 정 후보측 기사에는 “지하철역 청소하고 강북票心 집중공략”, 박 후보측 기사에는 “지하철안전 챙기고 강남개발 맞불公約”이라고 달았다. 부제도 정후보측에는 “용산 재개발지구-성산대교 방문, 현장점검 통해 ‘안전시장’ 부각”, 박 후보측에는 “강남역서 나홀로 첫 거리유세, 운동화 신고 상인들과 스킨십”이라고 적었다. 정 후보에게는 ‘청소’, ‘강북’, ‘안전’의 이미지를 박 후보에게는 ‘강남’, ‘맞불’, ‘나홀로’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與 “아름 닮고 희망 말하자” 野 “슬픔과 분노, 票로 심판”



△ 5월 23일 조선일보 5면 기사

부드러운 여당, 거칠고 드센 야당 만드는 제목 뽑기

조선일보도 6.4지방선거 법정 선거운동 첫날인 22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전하는 기사에서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23일자에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與 “아름 닮고 희망 말하자” 野 “슬픔과 분노, 票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했다. 여당에게는 통합과 치유라는 부드러운 뉘앙스를 야당에게는 분열과 심판이라는 거칠고 드센 뉘앙스를 입힌 것이다. ‘곡필(曲筆)’이 하도 많아 ‘직필(直筆)’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다.

“위험한 분”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네거티브 키우는 언론

언론들이 후보 간 정책 경쟁을 이끌지 않은 채 막연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발언을 내보내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이 같은 원색적 발언을 보도하기 전에 사실 관계조차 따지지 않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에 가까운 ‘막말’ 수준의 발언을 이어가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언론은 근거 없이 지나친 발언을 할 때 근거를 짚어 보거나 발언을 한 후보자에게 근거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막연한 비방일 경우에 그것을 녹취인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MBC-채널A, 후보들 입 빌려 ‘비방’

MBC는 <공식 선거운동 D-1 수도권 전운>(21일)에서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는 무능하고 위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언은 TV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다. <선거팀 규모 다른 이유는>(21일)에서 “박원순 후보는 무능하고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이 녹취 인용됐다.

22일 MBC는 또 <선거운동 개시 ‘안전’ 경쟁>에서 정몽준 후보에 대해 보도하면서 “(박원순 후보가 뉴타운을) 이렇게 방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방지한다면 그거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라는 발언을 녹취 인용했다.

22일 채널A는 <‘우리’ 박원순 vs ‘서울열차’ 정몽준 …패러디 선



△ 5월 21일<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거>에서 조수진 기자가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패러디 홍보물에 대해서 언급하다 말고, “(정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포스터에서 옆면으로 좀 돌아서 김보성씨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걸 보고 거무칙칙한 색깔에 옆얼굴을 찍어놨더라 관상을 봐야 실상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까지 원색 비난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앵커가 “그렇군요”라고 대답했다. 24일 채널A <안 다시 광주행… 왜?>에서 두 후보의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남희 기자가 정 후보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기자는 “(포스터를 보고) 정몽준 후보가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관상을 봐야 심성이 나오는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라고 발언을 전했다.

채널A, TV조선의 ‘빚빚한 보도’들

- 서울시 공무원 SNS-서울시장, 연결해야 직성?

서울시공무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하성 SNS 글에 대해 TV조선이 2건, 채널A가 1건 보도했다. TV조선은 22일 <공무원이 ‘마녀정권’ 막말 글>(22일)에서 사실 위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채널A는 23일 <서울시 공무원이 “朴 정부는 마녀정권”>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의 비판까지 함께 보도했다.

23일 TV조선은 <SNS 글 때문에 곤혹>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SNS에 올라온 글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SNS 글에 대한 새누리당 비판과 정몽준 후보 아들 막말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고소를 언급했다. 서울시공무원 SNS 글 관련 내용을 박원순 후보와 연관시켜 다시 등장시키느라 정몽준 후보 아들까지 꺼낸 온 ‘맞춤형 발제 기사’라는 인상이다.

- 멘트 실수? 혹시…진심 아닌가요?

채널A <박근혜 대통령 담화, 선거 판세에 영향 미칠까?>(21일)에서 기자가 “4월달 조사, 5월달 조사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후보를 10%도 넘게 훌쩍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정몽준 후보가 역시 박원순 후보를 10% 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을”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바꿔 말한 것이다. 채널A는 앞서 <‘안의 남자들’ 경선 전패…열친 데 뵈친 격?>(13일)에서도 앵커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의 막내아들 잘 좀 봐달라고 울먹인게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전열을 정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며 정 후보를 ‘서울시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채널A에게 ‘실수’인지 ‘진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관련 또 ‘막말’한 대변인, 청와대의 ‘의중’인가?

청와대 대변인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입이요, 대통령의 입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사건의 비중을 살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경욱 대변인의 입이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 ‘계란 라면’ ‘순수 유가족’ ‘잠수사 폼페이’ 등 잇단 막말이 그칠 줄을 모른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언론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에 심각성은 더 크다.

먼저 ‘계란 라면’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언론 등에서 ‘왜 이리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체육관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과 SNS에서 사진과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판 여론이 커져 있음에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월21일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 먹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황제 라면’ 사태를 무마하고, 서 장관을 보호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언론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5월8일과 9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KBS 항의 방문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금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나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당시 민 대변인이 ‘순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 불순한 세력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공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5월 24일 민 대변인은 ‘민간 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수습 시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은 말을 기자들에게 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 대변인은 “정부가 (그렇게나마) 격려해주길 희망한 개인적 생각”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민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사태 수습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도 안된 개인적인 생각을 언론에 흘린 것인가. 청와대가 ‘대통령의 눈물’을 담은 영상을 편집해 ‘홍보’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민 대변인의 이런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진정성’을 되문게 만든다.

민 대변인이 쏟아내는 막말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하지만 청와대 대응은 없다. 이런 대변인이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언도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막말 대변인이 진정 청와대의 속내인가.

언론은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삼성노동자 죽음을 모른척하는 언론

지난 5월 1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 분회장 염호석 씨가 계속되는 회사와의 싸움에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을 데리보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유가족의 뜻과는 다르게 노동자 염호석씨의 시신을 탈취하고, 이에 항거하던 조합원들을 구속했다.

이 소식을 언론은 어떻게 다루었을까. 다른 업체도 아니고 무노조 삼성에서 그것도 사실상 위장도급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조합원의 세 번째 죽음과 시신탈취, 조합원 구속 등의 사안은 결코 뉴스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중

앙 일간지 중 이 소식을 지면에 반영한 기사는 경향신문 4건, 세계일보 1건, 한겨레신문 4건, 한국일보 2건, 총 11건 뿐이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고인의 죽음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사옥 앞 시위로 인해 시끄럽다는 기가 막힌 보도를 실었다.

방송에서도 JTBC를 제외한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는 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과 시신탈취라는 믿기 어려운 이 사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승엽 홍련에 눈 뜬 이견희는 일제히 보도

반면, 언론들은 이승엽 홍련 소리에 병석에 있던 이견희 회장이 잠시 눈을 떴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은 세월호 참사가 인간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황금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겉말 일뿐 진심이 아니었다.

채널A-TV조선, '안대희 구애' 점입가경



△ △ 5월 22일 채널A <종합뉴스> 화면 갈무리



△ 5월 23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화면 갈무리

채널A “지기추상” 어울리는 분”

채널A 저녁뉴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평가는?>(22일)에서는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과거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을 보필했다는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출연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안 내정자에 대해 극찬과 칭송을 했다.

‘대인준풍 지기추상’이라는 말과 딱 어울리는 분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항상 온화하고, 자신에게는 추상과 같이 엄격하신 분”, “청렴하신 분이고 소탈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 “소탈함을 말씀드리자면 일에 대해선 아주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후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돼지껍데기에 소주 한 잔하시는 걸 참 좋아하신다” 등 구구절절 칭송의 말들뿐이었다.

자질, 검증 내용 없이 진행된 대담에서 정 변호사는 “당시 유행하던 모든 랩노래를 다 익히셔서 아들과 같이 노래방도 가고 그러시는 분”, “(딸은) 우리 아빠가 흥대 와서 물을 흐린다. 흥대 거리의 물을 버려놓는 미꾸라지다”라는 별명을 부른다고 말했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을 나열하며 안 내정자를 부각했다.

TV조선 “차기 대선후보의 잠룡”

23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도 안대희 띄우기가 진행됐다. 임재민 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삼아 봤는데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한다. 똑똑하고 대쪽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카드”라고 했고, 신혜식 씨 또한 “소신적 이미지와 이런(청렴한) 부분이 겹치면서 만약 잘된다고 한다면 차기 대선후보의 잠룡으로 기대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 씨의 발언과 달리, 안 내정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려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입을 낸 것을 두고 ‘전관예우’, ‘과도한 수입비’ 등이 현재 도마에 오른 상태다.

23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출연한 김성욱 씨는 안 내정자의 역할을 언급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는 세력들까지 많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인 표현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집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많은 부분이 정부감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앞서 청해진 해운 등이 반성하지 않는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과 ‘좌파나 반정부 선동 여론’을 꼽는 역지를 부린 바 있다.

채널A “남재준 김장수 사퇴, 북한 손뼉”

한편 채널A는 남재준·김장수 사퇴를 ‘북한이 박수치고 있을 것’이라고 호도하기에 바빴다. 23일 채널A <직언직설>에서는 주제를 아예 “북한과 ‘안보 3인방’”으로 잡았다. 이들이 말하는 안보 3인방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다. 이날 출연한 강명도 씨는 남 원장과 김 실장의 사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볼까는 질문에 “손뼉치고 있을 것”이라며 “남재준 원장 때만큼 큰 정보를 발표했던 적이 없었다”, “중요한 정보도 제때 제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안타깝다”, “대통령이 지켜줘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문제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원장 등에 대한 ‘칭송’만을 이어간 것이다.